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마늘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나서

[김준혁]

직원 30여 명·군서면사무소 합동...영암군 군서면 농가 마늘 수확 지원  
농촌 고령화 속 인력난 해소...지역사회 상생 ESG 경영 실천



▲영암지사 직원 30여 명이 영암군 군서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군서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마늘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10일 영암지사 직원 30여 명은 영암군 군서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군서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제때 마늘을 수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직접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제때 수확돼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선 농가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